

Open *Doors*

2019.03. Vol. 203

박해와 선교현장

모로코 *Morocco*

Yellow ID

OpenDoors를 검색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여 친구추가하세요

TEL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주의 기도 (3)

브라더 앤드류(오픈도어 설립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당신은 기도가 점점 개인적으로 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면 오래 지나지 않아서 막연하게 혹은 일반적으로 “추수할 일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가족과 이웃과 이 도시를 구원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모험적인 일이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불타는 전선에서 싸우는 이들과 합류하게 될 것이며, 원수의 표적이 될 것이다. 우리를 선지자로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한다면, 우리는 인기를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의를 위하여 조롱당하고, 욕을 먹고, 핍박을 받을 것이다. 성경의 어느 선지자도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거나 인정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역사를 만들었다. 그것은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입었기 때문이다. 지역교회는 신병을 모집하여 기본적인 훈련을 시키며, 일선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후원과 보급을 하는 기지가 되어야 한다. 교회가 오락, 사회활동, 자기개발, 또는 거대한 건물을 지키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다. 큰 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사회와 세상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며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을 뽑내기 원하는 사람들의 호화 전시장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고 열심을 내는 대신 교회 공동체의 세속적 행복을 추구하는 일에

열중하는 것이다. 그들은 끝없이 유명 인사와 재미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며 기분전환과 극적인 것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충족시켜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마취되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고통을 느낄 수가 없게 된다.

나는 이런 교회를 많이 보았다. 그들 가운데 설교도 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본 것 때문에 놀랐고 슬펐다. 신자들은 음악에 발을 맞추기 바쁘고 무대 위 연기자의 공연에 정신이 팔려 있다. 목사는 새신자의 수를 세는 것과 교회 건물을 더 크고 으리으리하게 건축하여 일요일에는 그것을 감상하며 즐기는 일에 힘을 다 쓴다. 이로 인해 교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인간의 영혼을 구하려는 전투에서 패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진지하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알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있는 모든 일을 살펴보고 그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04



06



14



16



18



22

04 북한 선교 현장_나의 출애굽기X

06 박해와 선교 현장 모로코Morocco

14 2019 박해지도 신청

16 오픈도어 사역
인도네시아 제자훈련 프로그램

18 오픈도어 뉴스
박해뉴스: 파키스탄(Pakistan) & 북한(North Korea)

20 북한 사역자 모집 / 오픈도어 후원

21 오픈도어 박해 퍼즐

22 2019 머스카슬론

23 북한캠페인

OpenDoors 2019년03월호 | 통권203호 |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공동대표_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_김성태 교수
부이사장_김명재, 김영복 목사
이사회_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박종배, 최홍규, 김성곤,
박윤환, 오정호, 이동현, 배춘섭, 양성찬, 김윤태 목사
사무총장_이종만 목사
정보/행정/재정_오현정 간사
북한선교_제나, 이다니엘, 리디아, 나오미, 레아, 수지 간사
발행처_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596-3171 / 070-7522-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_이종만 목사

< 후원 계좌 >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오픈도어선교회: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북한 캠페인: KB 국민은행 029301-04-169183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나의 출애굽기 X

드보라



그렇게 술에 취하고 남편과 싸우는 일이 계속되고 이렇게는 못살겠다 싶었던 어느 봄이었다. 농촌 일손을 도와주며 일당을 벌려고 도시 사람들이 우리 동네를 찾아왔다. 그 사람들은 당시 20대 후반의 나이에 탈북자로 시골에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젊은 사람이 이렇게 외지고 어려운데 사는가?” 하며 안타까워했다. 시골은 항상 돈이 없었다. 가을걷이를 해도 빚 갚으면 돈이 없었다.

도시에서 오신 분 중 한 분이 우리집 연락처를 받아가면서 도시 나가면 돈 버는 데 많다고 연락 주겠다고 했다. 그 사람의 말이 귀를 맴돌았다. 이 가난에 찌든 외진 시골에서 맘에도 없는 사람과 사는 이 생활이 지긋지긋했다. 그렇게 도시에 나가서 돈을 버는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중에 우리집으로 전화가 왔다. 그때 연락처를 줬던 그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온 것이다. 나는 전화를 받고는 무작정 짐을 싸서 도시로 출발했다.

전화로 안내를 받은 장소로 어렵게 이동해서 그 사람을 만났다. 그 사람은 대뜸 나에게 한국 가자고 했다. 덜컥 북에서 교육받을 때 들었던 안기부 사람인가 싶

었다. 나는 절대로 안 간다고 했다. 어떤 한국 분이 나를 만나겠다고 했지만 나는 절대 안 만나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에게 돈을 벌도록 도와줄 사람이라며 어떤 이상한 남자를 소개하더니 그 사람과 함께 나를 북경으로 보냈다.

며칠 동안 기차를 타고 북경에 도착하니

나를 어떤 큰 건물 지하로 데리고 갔다. 으스스하고 색깔이 빨간 불이 많은 그곳은 사람들이 샤워도 하고 안마도 하는 그런 곳이었다. 조선말 하는 사람이 없고 중국 말만 하는 곳이라 나는 나를 데리고 온 사람만 꼭 붙잡고 갔다. 다행히 사장은 연변 사람이라 조선말을 했다. 사장은 나에게 마사지를 배우라고 했다. 그곳에는 오후만 되면 엄청 예쁜 대학생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애들이 단체로 와서 마사지를 받았다. 훗 같은데 남자들이 흰 가운을 입고 누워 있으면 그 아이들이 마사지를 하는 것이었다. 사장은 그 중 어떤 여자한테 나에게 마사지를 가르치라고 맡겼다.

말도 잘 안 통하지만 그 아이와 손짓 발짓 해가며 따라서 마사지를 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나는 전혀 마사



지에 소질이 없었다. 나는 열심히 주무르는데 남자가 아파하기 일쑤였다. 그러다가 남자가 화를 내면 어찌 대응할지 몰라서 도망가기 바빴다.

더 이상 못하겠다고 싶어서 사정을 했더니 한 며칠 데리고 있다가 다른 일을 소개해 주었다. 어느 공안의 집에 어머니를 모시는데 가정부를 하라는 것이다. 공안이라니... 당장 나를 잡아갈 수도 있는 사람 집에서 어떻게 가정부를 하라는 건지 눈앞이 캄캄했다. 게다가 보수도 너무 쪼다. 차라리 전에 있던 마을 인근 도시에서 일하는 것이 더 많이 벌겠다 싶었다. 그래서 안하겠다고 하고 다시 나와보니 또 마사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가슴이 답답하고 암담했다. 그러면서 괜히 감정이 북받쳐서 그냥 다시 집에 보내달라고 사무실에서 울기 시작했다. 다 큰 어른이 사무실에서 울고 있



으니 많이 당황했을 것이다. 그치지 않고 한참을 울었더니 사장이 나를 데리고 기차를 태워서 다시 연길로 보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정말 아찔한 일이었다. 그 사람이 나를 다른 험한 곳으로 팔아먹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기차표까지 사주고 나를 보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도 큰 손해였을 것이다. 게다가 북경까지 왔다 갔다 한 것 자체가 사실 너무 위험한 일이었다.

나중에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던 예쁘장한 중국 언니에게 그 이야기를 하자 나에게 대뜸 **“기차 칸에서 차표 검열 안 하디?”** 하고 물었다. 신분증 검사 못해도 2번은 하는데 너는 어떻게 피했냐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보니 정신이 아찔했다. **그때는 몰랐지만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 외에는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계속)



모로코 Morocco

- 인구: 36,200,000명
- 박해정도: 극심함(35위)
- 수도: 라바트(Rabat)
- 주 박해요인: 이슬람 탄압과 정부의 독재정치

모로코는 2019년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에서 63점으로 박해 순위 35위를 차지했다. 2018년에는 51점으로 세계 박해 순위 50권 밖에 있었다. 이러한 증가는 포괄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들이 유입되면서 억압과 폭력 모두 높은 점수로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모로코의 박해 상황

1. 박해 원인

이슬람의 탄압(Islamic Oppression)

모로코는 주변 지역들과 비교해서 다소 온건한 이슬람의 탄압을 보여주고 있다. 이슬람 당국에 의해 가해지는 이런 탄압들은 발견되는 경우 아랍의 기독교 서적들의 몰수가 포함되며 해외 기독교인들과의 협력관계를 금지한다.

특히 무슬림 배경의 신자들과 기독교인들의 예배를 위한 장소의 확보도 금지된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이 공공연히 자신들의 신앙을 복음전파의 목적으로 선포한다고 느껴질 경우 그들의 새로운 신앙으로 인해 가족과 친구 그리고 지역 사회로부터 탄압을 받게 된다.

모로코에서는 주로 정부 관료 및 정당, 정치인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슬람 교리로 억압을 가한다. 모로코의 정의개발당(Justice and Development Party, PJD)은 국왕에 이어서 가장 중요한 정치 행위자로 여겨진다.





기독교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정의개발당의 지도자들은 기독교에 대해 편협하고 비관용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종교의 자유와 기독교 교리를 믿고 신앙을 가질 권리를 온전히 인정하고 있지 않다. 정부 관료들 또한 무슬림 배경을 가진 기독교 개종자들의 업무에 비협조적이며, 집회의 자유와 전도 등의 행위를 허락하는데 있어서도 소극적이다.

집권당의 지도자였으며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아브델라지즈 아프타티(Abdelaziz Aftati)는 기독교인이 모로코 내에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발언을 조롱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개종자들의 확대 가족, 그리고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 또한 개종자들에게 많은 압력을 가한다. 이들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할 것을 강요하며, 이러한 현상은 도시를 벗어나 지방으로 갈수록 두드러진다.

▶ 독재정치(Dictatorial Paranoia)

모로코 정부는 교회를 감시하되, 특별히 개종 기독교인들을 가진 교회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본다. 모로코 국민들은 이슬람과 국왕 그리고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들로 인식되고 있으며 기독교는 이러한 전통과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여러 해 동안 모로코 정부는 기독교인들을 국왕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고소했으며, 적절한 이유도 없이 외국에서 이주한 기독교인들을 추방했다. 이러한 조치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과격 이슬람 세력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입장을 변호하면서 사회적 불안을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개종자들은 정기적으로 구금되고 자신들의 동기와 행적에 대해 심문을 당하기도 한다.



모로코 내에서 외국인들은 공개적으로 기독교 신앙 생활을 유지하고 드러낼 수 있으나 무슬림들의 개종은 불법이다. 모로코의 대외적인 이미지는 진보적이고, 관용적이며, 역동적인 경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외적인 이미지는 종교적 소수의 권리를 탄압하는 내부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이미지”에 불과하며, 모로코 내 기독교 개종자들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다.

외국인 기독교 공동체

외국 기독교인들은 다양한 직업에 활동하고 있으며 복음전파와 관련되어 있는지 종종 감시를 당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경우 국외로 추방된다. 하지만 특별히 기독교로 개종한 모로코인들과 비교해서 비교적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

외국인을 위해 등록된 교회들은 대도시에만 소수가 존재한다. 이 부류에 속한 교회들은 1956년 독립 이전부터 존재했던 가톨릭교회, 콥틱 정교회, 영국 성공회 그리고 프랑스 개신교회이다. 이들은 대부분 자신 소유의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는 땅을 소유하고 있다. 교회 건물이 예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한, 교회는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정부는 건물을 점수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이 교회들이 새신자를 얻기 힘들고 모로코 기독교인들

2. 박해 유형

모로코 내부 상황

모로코는 프랑스의 보호국이었으며 무슬림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세계 기독교인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모로코 전체 인구의 약 99.7%가 무슬림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으로 모로코는 국왕과 의회가 있는 입헌군주제 국가인데, 국왕은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로서 광범위한 행정적 권력을 가지고 있다.

2011년 아랍의 봄 기간 동안 모로코에서도 시위가 있었는데, 이에 2011년 7월 1일에 정부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이 때문에 모로코는 아랍 지역을 집어삼켰던 대규모의 정치적 진통을 피할 수 있었다.

과 무슬림 배경의 신자들이 함께 예배 드리기 힘든 상황을 고려하면, 역사를 가진 기독교 공동체가 이 나라에서 활동하고 존재하기가 쉽지 않다. 사하라 사막 남부에서 이주해온 순복음 교회의 외국인 기독교인들은 종종 소외되고 차별을 받고 있다.



개종자 공동체

모로코의 기독교인들은 가정교회로 모인다. 왜냐하면 그들은 공공장소에서 모일 수 있는 공식적 허락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장소를 정기적으로 바꾸고 교회의 역사에 따라서 교단으로 발전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은 전통적인 교회의 그룹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도심 지역이나 정부 관리들이 기독교 개종자들에 대한 관용은 모로코 이외의 국가의 수준보다는 비교적 나은 편이다. 그럼에도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은 여전히 자신의 신앙을 포기할 것을 사회와 가족으로부터 강요당하고 있다. 그들은 종종 감시를 당하고 있고 박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별히 복음전도에 관여된 경우 더욱 위험하게 된다.

3. 삶의 영역에서 박해 정도와 폭력

2019년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는 모로코에서 자행되고 있는 박해의 몇 가지 유형을 보여준다.

●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는 평균점수가 2018년 보고서에 비해서 10.1점에서 12.3점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증

가의 이유는 점수에 영향을 주는 좀 더 자세한 정보들이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 교회생활에 대한 압력은 매우 심각하다(14.4점). 이는 복음을 전할 경우 외국인 교회가 복음을 타인과 공유하고 전하는 경우 많은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개종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의 경우 정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교제와 교류를 즉각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높은 점수(13.3점)는 가족영역이다. 이는 개종자가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실천하고자 할 때 많은 압력에 시달리는 사실을 보여준다. 예를 들면, 세례

를 받거나, 기독교 방식으로 결혼이나 장례를 치르는 경우는 큰 어려움에 직면하며 가족과 사회 그리고 지방의 경우 지방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게 된다.

● 폭력의 영역에서 2018년과 2019년을 비교하면 0.6점에서 1.5점으로 상승했다. 이러한 상승의 이유는 새로운 정보수집이 활발하게 되면서 이전에 보고되지 않던 자료들이 수집되었기 때문이다.



개인 영역

비록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모로코의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고, 이슬람 지도자들이 개종자들에게 죽음의 형벌을 주어야 하는지 논쟁을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법률을 현실에서 강하게 시행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개종자들은 친척과 가족들 그리고 특히 시골의 지역 공동체로부터 압력을 받는다. 따라서 개종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는 쉽지 않다. 개인적 예배와 기도 등은 자신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사실을 밝히는 행위이며 동일한 위험을 동반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은 주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완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은 이슬람 과목의 수업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다. 학교에서 강제적인 이슬람 교육이 일반적이다. 기독교 개종자에 대한 이러한 종교교육과 가족생활에 대한 침해는 여타 다른 지역보다는 강하지 않은 편이다.

가족 영역

앞선 언급된 것처럼 기독교로 개종하면 개종자의 가족과 친척들은 즉각적이고 호전적인 반응을 보인다. 이 나라는 모든 모나코 국민들이 무슬림이어야 하며 기독교인들은 무슬림인지 묻지 않고 결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 기독교인 남자가 모나코 여성과 결혼하기를 원하는 경우 질문을 통해서 자신이 무슬림이라는 사실을 말해야 한다. 모든 어린이들은 이슬람 과목의 수업을 받아야 하며, 사립학교에 다니는 기독교 어린이들

공동체 영역

기독교 개종자들은 특히 시골마을에서는 추방을 당한다. 이들은 이슬람의 종교적 활동과 의식에 참여하라는 강한 사회적 압력을 받게 된다. 무슬림 배경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사회적 압력으로 인해 자신

의 자녀들을 기독교인으로 양육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압력은 학교에서의 괴롭힘이나 부모의 동의도 없이 이슬람 교육을 강제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도시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은 조금 더 나은 환경에 있지만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는 것은 여전히 개종을 강요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국가 영역

비록 모로코에는 상대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적인 경우 기독교인들에 대한 상당한 차별과 불이익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라마단 기간에 공공장소에서 식사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기독교 신앙의 전도활동은 금지되고 타인들에게 기독교 서적을 나눠주는 것과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도 역시 불법이다. 모로코의 고등종교위원회(High Religious Committee)는 2012년에 발표한 입장, 곧 신성모독은 사형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무슬림으로 하여금 자신의 종교를 바꾸도록 허락하는 결정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전도활동을 하는 기독교인들은 “이슬람 신앙을 훼손하는 행위”로 고소될 수 있으며 범죄행위로 법적 책임을 진다. 국가의 공무원들은 기독교인을 감시하며 그들의 행위를 관찰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막는 활동을 한다. 국가는 무슬림 배경의 기독교인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교회 영역

외국에서 이주한 기독교인들의 공동체는 모로코 자국의 국민들이 예배에 참석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항상 감시의 대상이다. 교회 밖에서 진행되는 교회 활동은 전도활동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방해를 받는다. 이것은 무슬림 배경의 기독교인들이건 아니든 상관없이 동일하다. 해외 이주 기독교인들과 교회의 연합에 대한 억압은 두 공동체 모두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정부는 불어성경, 영어성경 그리고 스페인어성경의 판매와 전시를 허가하고 있다. 아랍어성경은 대학의 종교강의 교재로 소수의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을 뿐이다. 정부당국은 개종을 목적으로 사용될 소지가 있는 성경은 모두 몰수하고 있다.

교회가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거나 자선단체나 병원 혹은 사회문화 기관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은 방해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조직은 개종이 목적인 활동으로 인식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비록 이러한 기관들이 교회보다 다소 활동이 자유롭지만, 모로코의 교회들은 실제적 억압과 한계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

폭력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신자들은 자신의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학대를 경험하며, 체포될 수 있고 당국에 의해 조사를 받게 된다. 개종한 여성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성적인 학대와 어떤 경우에는 강제결혼의 위협에 처하게 된다. 외국에서 이주한 기독교인들은 복음 전도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으로 의심을 받아 입국이 거절되거나 추방될 수 있다.

4. 성별에 따른 박해 상황

여성

지난 15년 동안 모로코 여성에게 법적 평등의 관점에서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기는 했지만,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보다 불평등한 위치에 있다. 이는 특별히 여성 개종자들에게 분명하며, 국외에서 이주한 여성 기독교인들도 동일하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지방의 경우 여성들은 가사일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여성 개종자들은 개종한 사실이 밝혀지면 집에 구금되며 허가 없이 외부 사람을 만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여성 개종자들은 가족들의 의해 무슬림 남자에게 강제결혼을 강요당한다. 이미 결혼한 상태이며 남편들은 이혼을 요구하며 자녀양육과 재산분할의 권리도 박탈당한다. 이러한 개인에 대한 처리는 샤리아법의 수니파 해석을 따른다. 이러한 법은 변경될 가능성이 없으며, 개인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게 한다.

남성

남성이 개종했지만 여전히 어리고 부모님께 함께 생활하는 경우에는 가족으로부터 버려지고 양육이 중단될 수 있다. 개종한 기독교인들은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

는 이유를 가족에게서 버림을 받는다. 남자들은 대부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따라서 개종자라는 이유로 생계나 신뢰를 잃으면 가족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된다. 개종으로 인한 파급 효과는 개종자의 사회적 지위와 지역의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달라진다.

▶ 모로코 상황을 이해하는 핵심 요소들

최근의 역사

모로코는 1912년부터 1956년 독립을 얻기까지 프랑스의 보호국이었다. 독립으로 인해 모로코는 소위 “서부 사하라”라고 불리는 스페인 보호령에 있던 영토를 회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스페인 통치 영토에 대한 모로코의 영토권 주장은 일부 지역을 확보하려는 사라위 아랍공화국(Sahrawi Arab Democratic Republic)의 저항에 부딪혀 있다.

종교적 상황

국민의 99% 이상이 수니파 무슬림이며 나머지는 기독교인이거나 무신론자들이다. 이슬람은 국가의 종교이며 비무슬림 외국인 공동체는 자신의 신앙을 고수할 수 있다. 모로코의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로마가톨릭 신자이다. 모로코는 종교를 관용하는 나라이지만 무슬림을 다른 종교로 개종하려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정치적 상황

모로코는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왕이 포괄적 행정권력을 가지게 되며 정치와 종교 지도자를 겸하고 있으며 “신앙의 통치자”(Commander of the Faithful)의 역할을 맡고 있다. 왕은 국무장관 회의를 주관하며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에서 총리를 임명한다. 총리의 추천을 받아 정부의 구성원을 임명한다.

2100년 “아랍의 봄”(Arab Spring) 모로코는 자유의 바람과 경제적 변화에 대한 갈망을 표출했다. 졸업을 하고도 실업상태로 있던 많은 젊은이들이 길거리로 몰려나와 변화를 요구했다. 정부는 2011년 7월 1일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이 선거에서 무슬림 정당이 다수석

을 차지하고 연정을 형성했으나 여전히 정부로부터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2018년에 일부의 지도자들은 장기간의 정역을 선고 받았다.

사회 경제적 상황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모로코의 경제력은 상대적으로 역동적이며 강력하다. 광산, 농업, 제조업 그리고 관광산업은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속적 경제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모로코는 유엔의 인적자원개발지수(UNDP Human Development Index)에서 123위를 차지했다. 평균수명은 75.8세이며 1인당 국민소득은 7,710달러이다. 모로코의 기업들은 점차 성장하고 있으며 다른 아프리카 지역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세계기독교박해순위
WORLD WATCH LIST
2019

2019년 세계 박해지도를 신청해주세요.

전화: 02)596-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필요한 사이즈와 수량을 말씀해 주세요.
국2절, A4사이즈

OpenDoors
Serving persecuted Christians worldwide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동성빌딩 4층
Tel. (02) 596-3171 | 070-7522-3171 | odsk@opendoors.or.kr
www.opendoors.or.kr | <https://www.facebook.com/opendoorsko>

박해순위

전세 점수

1	북한	96
2	아프가니스탄	94
3	소말리아	91
4	라비아	87
5	파키스탄	87
6	수단	87
7	에리트레아	86
8	예멘 아랍 공화국	86
9	이란	85
10	인도	83
11	시리아	82
12	나이지리아	80
13	이라크	79
14	볼리비아	78
15	사우디 아라비아	77
16	아랍트	76
17	우즈베키스탄	76
18	미얀마	71
19	라오스	71
20	베트남	70
21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70
22	알제리	70
23	투르크 메니스탄	69
24	말라	68
25	모리타니	67
26	터키	66
27	중국	65
28	에티오피아	65
29	타지키스탄	65
30	인도네시아	65
31	요르단	65
32	네팔	64
33	부탄	64
34	카자흐스탄	63
35	모로코	63
36	브루나이	63
37	튀니지	63
38	카타르	62
39	멕시코	61
40	케냐	61
41	러시아 연방	60
42	알제리(사아)	60
43	쿠웨이트	60
44	오만	59
45	아랍 에미리트	58
46	스리랑카	58
47	콜롬비아	58
48	방글라데시	58
49	팔레스타인 영토	57
50	이제르바이잔	57

국가별
최고점수 = 16.7

교회영역
최고점수 = 16.7

폭력
폭력에 대한 증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미움의 정도를 나타낸다.

폭력
최고점수 = 16.7

최고 박해 10개국

최고 폭력 10개국

박해 최고점수 = 83.3
+
폭력 최고점수 = 16.7
=
순위 #
최고점수 = 100

높음 매우높음 극심함 박해정도

인도네시아 제자훈련 프로그램 : 두려움 없는 여성 지도자 양성



디바(19세)는 당신을 쉽게 속일 수 있다. 화사한 핑크색 히잡과 어울리는 의상으로, 그녀는 소녀스럽고 순진한 대학생이라고 여길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자 그녀의 연속된 문장들은 마치 기관총처럼 발사된다. 즉, 신속하면서도 정확하다.

디바는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제시한다. 그녀는 거의 모든 것을 반박할 수 있는 변호사와 같이 완벽한 모델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다. 그녀는 책을 많이 읽는다. 예수와 함께 한 그녀의 모험에 대해 열정적으로 말

할 때, 그녀의 손은 그녀의 말처럼 활기차게 춤을 춘다. 그러나 디바는 항상 그리스도의 팬은 아니었다. 수년 전, 이처럼 밝은 모습을 가진 그녀는 가장 신성한 사람이 무하마드라고 생각했었다. 우연히 만난 기독교인은 그녀에게 더 깊이 코란을 읽으라고 도전했다. 코란을 계속 읽으면서 이사(예수)가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녀는 말한다.

“이슬람에서는 그(이사)가 코란에서 언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사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호기심과 열린 마음만이 점들을 연결시켜 그를 찾게 할 것입니다.”

디바는 매일 멘토를 방문하기 시작해 한 달 동안 집에 머물면서 ‘이사’의 주제를 더 깊이 알게 되었지만, 부모의 의심을 받게 되었다. 어머니가 자신을 찾은 이후에서야 집으로 돌아왔고, 마을에는 그녀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소문이 퍼졌다.

디바는 부모님께 도움을 얻기 위해 돌아왔다고 회상한다. 기독교인이 됐느냐는 질문에 다른 종교에 대해 배우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공부 잘하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라고 답한다. 이사(예수)를 만난 지 2년이 지난 오늘 디바는 아직 부모에게 자신의 믿음과 제자 공동체에 대해 고백하지 않았다.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선교사 그룹에 가입했다고만 말합니다. 하지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코란에 있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비록 그것이 종종 나와 아버지를 격렬하게 논쟁하게 한다 해도 말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은 멋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메는 것은 불편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은 도전입니다.”

디바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많은 도전에 대해 “당신은 뿌린 대로 거두게 된다”고 말한다. 오픈도어 사역자는 그녀에 대해 이렇게 증언한다.

“한 번은, 그녀가 우리 세미나에 가는 길에 의심 많은 아버지께 미행을 당했는데,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위험을 무릅썼어요. 그녀는 어쨌든 자신의 추적을 따돌린 후에 왔습니다. 그녀의 결심은 자신이 예수를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를 용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픈도어는 제자훈련 과정에서 사용되는 교재를 제공한다. 그녀는 말한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12개의 제자훈련 교재 중 첫 번째 책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믿음을 키웠고, 나를 더 잘 알게 해주었습니다. 누가 나를 창조하고, 어떤 목적으로,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나는 그것을 부모님과 캠퍼스 친구들과 공유했으며, 친구들 중 몇몇은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변화의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픈도어가 아시아 비비(Aasiya Bibi) 사건과 함께해준 크리스천들을 만나다

오픈도어 파트너인 얼라이브 팀(Alive team)은 아시아 비비가 석방되도록 노력과 기도로 지원해온 핵심 인물들을 만났다.



오픈도어 파트너인 얼라이브 팀(Alive team)은 아시아 비비가 석방되도록 노력과 기도로 지원해온 핵심 인물들을 만났다. 그들은 아시아 비비의 사건을 단지 파키스탄이라는 한 이슬람 국가의 기독교 박해 사건으로만 보지 않고 마치 자신의 가족 일처럼 그녀와 주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오며 마음의 부담을 함께 짊어져온 사람들이었다. 10년이란 기간은 비단 아시아 비비 한 명뿐 아니라 이들 모두에게 고통과 기다림 그리고 합심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아시아 비비가 석방될 때 드디어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간증을 동시에 고백할 수 있었다.

다음은 또 다른 성도가 나눈 내용이다.

“항상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주님은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들에 승리를 주시는 주님께서 결국 이번 아시아 비비 사건에도 승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는 전 세계 곳곳에 퍼져있는 많은 신자들의 중보기도와 사랑과 격려를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그들의 이름도 잘 모르고 얼굴도 본적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승리의 찬양을 함께 나눌 수 있음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북한 성도가 오픈도어의 지원에 감사하는 편지를 보내오다.

오픈도어 북한 사역팀은 지속적으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해 듣는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성경책과 기독교서적들에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자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의 신앙에 더욱 큰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은 북한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더욱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2019년에도 주안에서 모든 일이 형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한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2019년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북한 선교 사역에 힘든 해가 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북한 주민들은 전혀 삶의 질이 개선되지 않은 채 어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다. 특히 북한에서 크리스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전보다 더욱 위험해 지고 있다. 2018년도에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신앙을 이유로 목숨을 잃었다. 이러한 위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와 지원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오픈도어선교회 사역자 모집(전임)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믿음 안에 굳세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사역하고 있는 한국 오픈도어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북한선교에 헌신할 사역자를 구합니다.

회계 담당 사역자 부분 (모집기한: 3월 한)

1) 모집인원 : 〇명

2) 주요업무

일반 회계 업무 및 프로젝트 관리

3) 지원자격

- 고난 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일에 열정과 사명을 가진 분
- 영어 업무 가능자, 회계 관련 경력 또는 전공자 (해외 본부와와의 업무 협업)

4) 우대사항

- 재정 및 회계 부서 유경험자
- 외국계 기업 등 영어를 사용한 업무 환경에서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5) 사역 조건: 4대 보험 지원, 급여 개별 협의

6)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신앙고백서(홈페이지 양식 참조)
- 추천서 2부,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 증명서 사본 (면접시 지참)

7) 제출

이메일: info@opendoors.or.kr

우편: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9길 10 영성빌딩 4층

문의: 이제나 간사(010-4668-6356)

한국 오픈도어



오픈도어사무실을 후원해주세요

◆ 선교회는 사무실 공간을 제공해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연락처: 02-596-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 선교회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 업무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금액: 700백만원

은 행: 신한은행

계 좌: 100-027-607588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1	2				6		
				5			
			4				
	3				7		
9							
				8			
10							
					11		

오픈도어
박해퍼즐



가로열쇠

1. '신(神)의 문'이라는 의미로써 '혼란'을 뜻한다. 노아 홍수 사건 이후 인류는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기 위해 성읍을 만들고 하늘까지 닿는 이 탑을 쌓아 올렸다. (창11:1-9)
3. 세베대의 아내이며,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 아래 있었으며, 안식일 다음날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여인 중 한 사람이다. (막16:1)
5. 하나님의 구속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팔레스타인 남북과 동서를 잇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한 제1의 도시요, 거룩한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
7. 하나님에 대한 별칭으로 사용되며, '경이로운 일', '불가사의한 것'을 뜻한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사9:6)
8. 신앙의 진리를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 죽은 사람들을 가리킨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로는 아벨, 스가랴, 세레 요한, 스데반 등이 있다.
10. 구약시대 번제물로 사용되었다. (창15:9, 레1:14, 12:6)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같은 순결성을 요구하시기도 하셨다. (마10:16)
11. 아하스가 바벨론에서 들여온 시간 측정 기구. 병에 걸려 죽게 될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로 이것의 해 그림자가 10° 뒤로 물러났다. (왕하20:8-11)

세로열쇠

2. B.C. 605년경 바벨론 침공 때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에게 바벨론의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붙여준 바벨론식 이름이다. (단1:1-7)
4. 스데반과 함께 초대교회 당시 구제와 교회 봉사를 위해 선발된 최초의 일곱 집사 중 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 받았다. (행6:5)
6. 성문 위에 세운 누각 (합2:1), 성을 파수하기 위해 세운 망루. (느3:31-32)
7. 2019년 1월 16일 오픈도어선교회는 '2019 세계 000 00 지수'를 발표했다. 매년 오픈도어선교회는 박해지역의 개인, 공동체, 국가, 교회, 폭력 등 5개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박해 점수를 합산해 1위-50위까지의 박해 국가를 선정하고 있다.
9. 2019년 기독교 박해 47위 국가. 토착 종교지도자, 마약 범죄조직 카르텔, 반정부 무장세력에 의한 기독교 박해가 자행되고 있으며, 이들에 의해 수많은 자국민들이 추방 당하고 있다. (2019년 2월호 오픈도어 뉴스 참조)

□ 지난호 정답 □

	여	호	와	라	파		속
				반			죄
살		오				구	제
구	레	네					
나		시			파	라	오
무		모			피		
	우		마	틴	루	터	
	박	해			스		

□ 지난달 당첨자 □

2월호 당첨자

김*윤 (6705), 김*정 (4056), 신*리 (2141)님 축하드립니다!

정답과 함께 성함, 휴대폰번호를 기입하신 후,
아래 email로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추첨을 통해 세 분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E-mail : odsk@opendoors.or.kr (기한 : 2019년 3월 10일까지)

2019

머스카슬론(Muskathlon)

한국대회 국내 참가자 모집

취지: 북한의 박해 받는 교회를 돕기 위해 전 세계 후원자들이 함께 하는 익스트림 스포츠 행사

일 시: 2019년 10월 9-11일(2박 3일)

장 소: 경기도 연천군

종 목: 산악 마라톤 21K & 42Km

산악 하이킹 80Km

산악 자전거 120Km

참가비: +50만원(체류 비용 + 선교헌금)

참가비 모금: 가족과 친구 혹은 동료 및 교회를 통해 대회 취지를 설명하고
매월 소액을 모금

참가인원: 해외 100명(확정) + 국내 50명 모집 중

자원봉사자 모집: 인원 20명(영어 가능자 우대), 행사 기간 체류 비용 지원

세계기독교박해순위(World Watch List)에서 북한은 18년 연속으로 1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또한 극단적으로**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박해와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영광의 여정을 걷는

북한 성도들의 손을 잡아 주세요!

여러분들의 후원이 영광의 여정을 기꺼이 걷고 있는 북한 성도들에게
생명으로 다가 갈 것입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호, 교육 및 훈련에 사용됩니다.

후원계좌: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9길 10, 영성빌딩 4층

전화번호: 02-596-3171 팩스번호: 02-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2019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길 바라며...

성경 훈련	선물 1	아프리카의 박해 국가 어린이들에게 성경 전달	×	5,000원	=	원
	선물 2	시리아의 제자훈련 프로그램	×	70,000원	=	원
	선물 3	중동의 목회자 훈련 사역	×	150,000원	=	원
생존	선물 4	위험에 처한 무슬림 성도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5	탈북자들을 위한 안전가옥 제공	×	50,000원	=	원
	선물 6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상담 사역	×	80,000원	=	원
여성	선물 7	박해 최전선에 있는 여성들을 위한 영육간의 돌봄 제공	×	30,000원	=	원
	선물 8	무슬림 국가에서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에게 신앙 교육	×	80,000원	=	원
어린이	선물 9	중앙아시아의 박해받는 크리스천 어린이들 신앙 교육	×	20,000원	=	원
	선물 10	박해 최상위 10개 국가 어린이들에게 기독교서적 전달	×	10,000원	=	원
난민	선물 11	중동의 크리스천 난민들에게 대피소와 구호품 제공	×	100,000원	=	원
	선물 12	한 사람의 난민의 훈련과 의료적 돌봄	×	40,000원	=	원
총 계					=	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www.opendoors.or.kr

참여안내 보내주신 헌금은 후원자분들의 뜻에 따라 각 선교지에 보내어집니다.

1. 전달하려는 선물에 표시하고 총 선물 금액을 계산합니다.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캠페인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3. 전화 (02-596-3171) 또는 이메일 (odsk@opendoors.or.kr)로 선물 신청 내역을 알려주세요.

